



단풍잎 휘날리며 ~ 곳곳 가을 정취 만끽

내장산·무등산·지리산·두륜산
10월 중순 단풍 절정기 맞아
울긁불긋 산행 관광객 '발길'

멀리 산꼭대기에서 단풍이 내려오고 있다. 처음엔 하나 둘 물들더니 온 산으로 번져나간다. 이산에서 저산으로, 빠르게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

단풍이 가장 먼저 온다는 설악산은 온통 울긁불긋한 색(色)으로 뒤덮였고 지리산에는 지난 18일 첫 단풍이 시작됐다.

정읍 내장산과 무등산은 20일, 해남 두륜산도 29일쯤 단풍으로 물들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산의 20%가 단풍으로 물들면 '단풍 시작'으로 알려져 있다.

단풍이 최고로 만발하는 시기는 시작일로부터 10~12일쯤 지나서다.

품품하게 단풍 구경 전략을 짜보자. 날씨에 따라 단풍이 절정이 이루는 산을 정리했다. 산 마다 절기가 있지만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도 이때쯤엔 산을 물들인 단풍을 볼 수 있다. 산마다 절기가 있다.

단풍 절정기, 혼잡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두르는 게 좋다.

◇ 내장산, 20일부터 애기단풍=내장산은 가을철 유난히 붉는다. 공원 입구부터 시작되는 5km 구간의 단풍 길은 색이 아름다워 가족, 연인들의 사진촬영 장소로도 유명하다.

내장산 단풍은 하이라이트로 찍히는 당단풍(唐丹楓)을 비롯, 털참단풍, 좁은 단



정읍내장산 단풍터널

풍 등 11종에 달한다. 잎이 작고 진한 빛이 특징으로, 애기 손바닥만큼 앙증맞아 '애기 단풍'으로 불린다.

정읍시는 올해 19억8000만원을 들여 조선왕조실록 보전터 탐방로 정비와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확충, 정읍사 스토리 전방대 사업 등을 벌여 전보다 쉽게 단풍 나들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지리산, 18일부터 피아골 삼홍(三紅)을=지리산 단풍은 천천히 물들고 더디게 떨어진다. 그리고 유난히도 붉다. 그중 으뜸인 구례 피아골 단풍은 가을철,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조선중 유학자 남명 조식은 삼홍(三紅)에서 "지리산이 붉게 타니 산홍(山紅)이요, 단풍에 비친 맑은 소(澗)가 붉으니 수홍(水紅)이요, 산에 들어선 사람도 붉게 물들

니 인홍(人紅)이라"고 노래했다.

구례군은 능선 쪽에서 시작한 첫 단풍이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온 산으로 번지면서 다음달 둘째 주(11일)쯤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셋째 주까지는 단풍 감상이 가능하다는 게 구례군 예상이다.

구례군은 다음달 4일부터 5일까지 구례군 토지번 직전마을 및 피아골 일대에서 '제 41회 지리산 피아골 단풍축제'를 연다. 연막사에서 삼홍소에 이르는 왕복 5km 관찰로를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 가을을 맘껏 즐길 수 있다.

◇ 무등산 20일, 두륜산 29일부터=광주·전남 지역에서 가장 먼저 단풍이 물드는 산은 무등산이다. 다음달 2일이면 절정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까지 단풍다운 단풍 구경을 못 갖

다면 두륜산으로 방향을 돌리는 게 낫다.

해남 두륜산은 단풍 절정기에 미처 산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느끼막한 단풍놀이를 떠나는 곳이다.

두륜산은 다양한 식물군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첫 단풍은 29일, 다음달 11일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흥사까지 4km에 이르는 숲 터널은 최고의 단풍 명소로 꼽히며 대흥사 풍경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다. 두륜산 정상에서 마주하는 탁 트인 다도해는 바다와 접한 해남에서 볼 수 있는 묘미다.

무주 덕유산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부터 장년층까지 힘들지 않게 단풍 구경을 즐길 수 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정읍=박기성기자·전북취재본부장



지난해 열린 근대골목길 페스티벌을 즐기고 있는 관광객들. <군산시 제곡>

군산시, 추억의 골목문화 체험행사

21일 '근대 골목길 페스티벌'

군산시는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옛 도심권 시간여행마을에서 골목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추억의 근대 골목길 페스티벌'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가을여행주간(21일~11월 5일)을 맞아 추억의 골목문화와 세대간 소통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주요프로그램은 고무줄놀이, 윷놀이, 제기차기, 딱지치기를 비롯한 추억의 놀이와 근대 주전부리 맛보기, 길거리 공연 등이다.

근대마을, 황토마임, 아코디언 악단, 재즈 공연과 근대 한복 대여, 손겨울·목걸이·팔찌 만들기, 시간여행 스탬프 투

어 등도 마련한다.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해 인력거 타기와 근대문화를 소재로 한 탁류 체험코스, 아리랑 체험코스, 테마 체험코스 등도 진행한다. 또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군산만의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는 야간형 문화관광 콘텐츠, '군산야행'(夜行)을 연다.

이번 행사는 '가을밤! 근대문화유산을 잡들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근대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 다양한 지역 문화재를 중심으로 전시·관람, 문화해설, 거리 테마공연, 플라마켓, 체험활동 등 54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만의 콘텐츠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기성기자 nogusu@

"휴식·치유 동시에" 순창 '실랜드' 건립 박차

2019년까지 80억원 투입

순창군이 휴식과 치유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신개념 관광휴양촌인 '실랜드'(사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창군 인계면 인덕로 건강장수연구소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실(SHIL·Sunchang Health Institute Longevity) 랜드 조성 사업은 휴식과 치유를 융합한 관광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오는 2019년까지 80억원을 투입한다.



군은 지난해 한국당노협회 태초 먹거리학교와 '실랜드'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기존 노후준비 교육, 당노학교, 식문화 도농교류, 군민 힐링 프로그램 등을 내실화해 실랜드 운영과 접목할 방침이다.

군은 '실랜드'를 노후교육 힐링 체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후생활 연구기반시설인 국립노화연구원 설립 및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건강장수연구소 일원이 치유 관광 일번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정양근기자 jyg@

전북 쌀 생산량 전년비 5.7% 감소

전북도의 올해 쌀 예상생산량이 전년 대비 5.7% 감소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호남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가 17일 배포한 '전북지역 2017년도 쌀 예상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벼 재배면적이 지난해 12만1천26ha에서 올해 11만8천340ha로 2.2% 감소했다. 재배면적 감소는 경지 면적의 자연감소와 정부의 쌀 대체작목 전환 정책 등의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10a당 생산량은 올해 548kg으로 지난

한 해 568kg보다 3.5% 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앙기 때 가뭄이 발생한 데다 수잉기와 개화기 때 잦은 비로 낫알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쌀 예상생산량도 지난해 68만7천에서 올해 648천으로 약 5.7% 줄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재배면적 감소와 a당 생산량 감소 탓으로 전체적으로 쌀 예상생산량이 줄 것으로 보인다" /김대성기자 bigkim@

"전주 명물 막걸리 맛보러 오세요"

21일 '왕대포 축제'

전국 대표 막걸리촌인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막걸리 골목에서 '왕대포 축제'가 열린다.

삼천동 막걸리골목 왕대포 축제추진위원회는 21일 오후 4시부터 밤 8시까지 막걸리 골목에서 상인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풍성한 문화공연을 결집한 막걸리 축제를 연다.

길놀이와 난타 등 식전공연으로 시작할 이날 축제에서는 개막식과 막걸리 흥 콘서트(대중가요·전통음악 공연), 장기자랑 등이 이어진다.

10여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삼천동 막걸리 골목에는 40여개의 크고 작은 막걸리집이 밀집해있다.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시는 막걸리 문화를 전주의 대표 브랜드로 키워 가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판권·전원주택지

- 장성 북하면 장성호 백암사 인근 2803㎡ 환경중음 1억3천
- 화순 동북면 가수리 2175㎡ 은행 2300 요양주택 절 적합 4800
- 담양 월산면 월평리 전 1689㎡ 판안한 분위기 1억4500
- 장성 북하면 백암통게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주택·원룸·아파트

- 원2, 거실, 기계10평 월산동 상가주택 임대 농성초등교 건-년 2천만원에 68
- 서동 제일아파트 7층 105㎡ 임대도 가능 매도 1억1500
- 원도 약산대지 1266㎡ 주택 27평과 별채 황토방 산 12393㎡ 포함 1억8천
- 서동 대지 185㎡ 상가와 5세대 전세 2억7천 월 55 법인소전합 4억
- 화순읍 동면 대지 320㎡ 국유지 50여평도 사용 북측주택 60여평 판백나무 준공 갤러리·커피숍·식당 적합 3억8천

투자·매도·교환

- 합평읍 돌머리해수욕장점 계획관리지역 5019㎡ 별칭형다가구, 숙박시설·요양시설적합 매도 6억2천
- 남구 임암동 상업지 주차장부지 890㎡ 투지에 양호 34억
- 영암 삼호읍 땅 1212㎡ 건물 925㎡ 은행2억5천 매도4억3천
- 담양 월산면 월평리 답 4846㎡ 과수원·농장적합 1억
- 무안 현경면 바닷가 전 4542㎡ 공사가 7천만 매도 8300만원

상가건물

- 북구 용봉동 아파트단지 입구 땅 1032㎡ 상가 1538㎡ 49억
- 계림동 상업지 대지 106㎡ 북측건물 122㎡ 식당·카페적합 1억6600
- 농성동 4차선점 대지 132㎡ 건물 237㎡ 은행 2억5천 매도 6억4천
- 농성동 대로점 대지 313㎡ 건물 997㎡ 병원·사무 등 적합 24억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매도 5억6천
- 유동 모텔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 교환가능 7억8천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급 매

- 전원주택지 담양 금성면 대성리 14479㎡ 담양호인근 1억7천
- 북구 우산동 모텔 대지 408㎡ 건물 971㎡ 27일 6억7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급 매"

전원주택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 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침단에서 20분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매매 - 9000만원(조정가)
- 문의. 010-3605-5000

<h4>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층 95㎡(28평) 보400/월47(임대중) 수익률 12% 이상 매매 6000만원 	<h4>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8층 49㎡(14평) 보200/월25(임대중) 수익률 12%이상 매매 3000만원
<h4>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층 49㎡(14평) 보200/월25(임대중) 수익률 12%이상 매매 3100만원 	<h4>수완지구 아파트 매매</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33평) 초·중·고 바로 인접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매매 2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